

“한미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

■ 한미 정상회담 뭘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간 1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두 나라 정상은 이전 진보 정권 10년간 손상된 한미동맹을 최대한 신속히 복원하는 동시에 그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양국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확대 심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미래비전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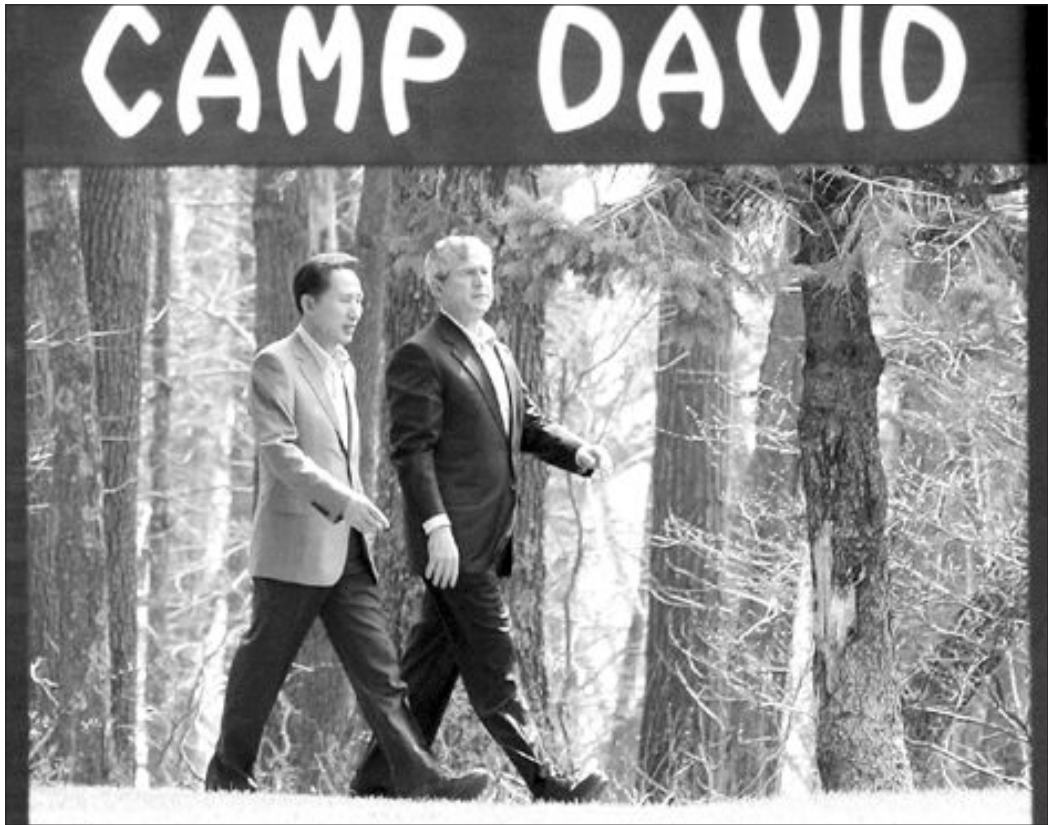
양국은 이를 토대로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가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양국은 오는 7월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과 2차 한미정상회담 때 미래비전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양 정상은 첫 만남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 이외에도 북핵문제에 대한 확고한 공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모멘텀 확보, 주한미군 3천500명 추가감축 중단,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국(FMS) 지위를 나토·일본 수준으로 향상, 한국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양해각서 체결, 미 쇠고기 한국 수입 전면 허용, 방위비 분담금제도 개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 가운데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 문제, 한국의 FMS 지위 격상과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은 서로 ‘주요반기식’ 협상의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북핵문제와 관련, 양 정상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핵의 조속 폐기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와 관련, “미국 행정부와 대화했던 것을 종합해보면 적당히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대북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끌어 올린다는 ‘비핵·개방·3천 구상’과 방미기간 전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19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 북쪽 메릴랜드주 미 대통령 공식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함께 오솔길을 따라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李대통령 “미, 북핵 적당히 안넘어갈 것”

한미 FTA - 쇠고기 협상 타결로 연내 비준 탄력

미 비자면제 프로그램 - 양국 가입 위한 MOU 체결

격 제안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한미 FTA에 대한 모멘텀이 되살아나면서 양국 의회에서의 연내 비준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큰 성과 중 하나다. 한미 양국이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을 조기에 타결지은 것도 한미 FTA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 정상은 양국간 실질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우선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관련, 양국은

한국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WV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18일 체결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광과 사업 등의 목적으로 3개월 이내 단기체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환경, 재난구조, 초국가적 범죄, 인권문제, 대테러 국제연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PKO(평화유지군) 활동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연합뉴스

‘실용외교’ 시험... 신뢰 구축 성과

■李대통령 첫 방미외교 결산

이명박 대통령이 새 정부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인 방미일정을 무난하게 소화하고 활기찬 발걸음으로 두번째 순방지인 일본으로 향했다.

이번 방미에서는 무엇보다 양국이 ‘21세기 전략동맹’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신뢰기반을 확고히 했고, 양국 의회내 이견으로 정체상태에 빠졌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의 ‘불씨’를 살린 게 최대 성과로 꼽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취임후 첫 해외방문 정상외교를 통해 그동안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에 가려졌던 외교력을 선보이는 계기도 됐다는 게 청와대 측의 자랑.

이 대통령이 4박5일 방미기간에 소화한 일정은 ‘메인 이벤트’인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모두 30여 개에 달했다. 특히 세계 경제 심장부인 뉴욕,

정치 중심지인 워싱턴에서도 이 대통령의 이른바 ‘얼리 버드(Early bird)’ 행보는 계속됐다.

뉴욕에서는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 한국투자설명회 등 ‘코리아 세일즈’에 주력했으며, 워싱턴에서는 상·하원 지도부 간담회,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등 정부 고위관료들과의 연쇄회동에 이어 한미정상회담 등 주로 ‘정치·안보 외교’에 진력했다.

성과도 적지 않았다. 우선 방미기간 미 정부와 의회에 한미 FTA 비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한미 양국 정상이 의회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공조하자는 원칙을 재확인 한 점도 큰 성과 중 하나.

특히 북한이 공식적으로 거부했던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기조인 ‘비핵·개방 3천구상’에 대해 부

시 대통령의 지지입장을 얻어낸 것도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움직임을 무력화하는 ‘방어벽’을 쌓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방미기간 국내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돼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추동력을 마련한 것은 일부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순방 성과를 뒷받침했다.

이 대통령도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미국 방문의 성과 중에서도 사증면제프로그램의 양해각서 체결이 양국 국민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양국 관계 미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합의’가 원론적인 단계에 그쳐 향후 세부 조율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어 앞으로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연합뉴스

8월 이행 약정... 이르면 12월 가능

■ ‘무비자 미국 여행’ 언제쯤

한국과 미국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WV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무비자 미국 여행’이 언제쯤 가능할 지 관심이 있다.

한·미는 ‘12월 WVP가입’을 목표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 확한 시기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MOU를 토대로 8월까지 양국 국민의 정보공유 문제를 포함한 이행약정을 체결해 WVP가입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여권 제도도 정착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관공·외교관용으로 전자여권을 시범발급하고 있으며 8~9월에는 일반인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측이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다. 미국은 전자여행허가제 실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미국 입국 희망자가 미 정부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간단한 신원정보를 제공하면 수 초만에 미국 입국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시스템에, 우리 뿐만 아니라 이미 WVP에

가입한 27개국에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미국은 이 시스템을 9월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미국 국토안보성 관리를 비롯한 평가단이 방한해 전자여권 발급실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평가단은 9월께 방한할 예정이며 미 행정부가 평가단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WVP가입을 결정하는데 두달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12월에는 비자없이 미국을 여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점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입니다! ·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봉과 강의!

곽내영교육학

현재 상담 접수중! 마감주의 개강 5월 2일

▶ 강의시간: 직권반(금)10:30~18:00, (토)10:00~18:00, 영남반 / 월, 화, 수 18:10~22:00 ▶ 수강료: 기본이론반 120시간 (28만원)

* 곽내영고시학원은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많은 문제를 적용 시켰다'는 수험생들을 현혹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 오직 임용고시만을 전문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에서 합격까지 - 무료상담 「매주 (화,금)11시, 3시, 7시」

개설 강좌	교육학	초등교육	유아교육	전공국어	전공생물	전공물리
	곽내영 선생 개강 5월 2일	위재권 선생 개강 7월 첫째주	임미선 선생 개강 5월 11일	최병해·이은용 선생 개강 7월 초	김치옥 선생 개강 7월 초	장영민 선생 개강 7월 초

곽내영고시학원 대표전화 529-0090 http://www.naeyoung.com

광주역과 무등경기장 사이(신안 사거리)

인터넷 동영상 곽내영교육학 에듀뷰넷 www.eduview.net 021616-1646

가장 안정된 직업, 늦었지만 나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상한연령제=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원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경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건축직	보건의
-----	-----	-----	-----	-----	-----	-----	-----	-----	-----	-----	-----	-----	-----	-----

※ 특별한 개강, 가칭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09:30분 강의시작만 모집 ※

5월 9급 지방직대비 개강 합격수강 회원모집

=특별한 개강: 4월 21일 = 5주완성·명장·고급직대비 =

=감(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www.mdgosi.co.kr 222-4560

주택관리사

★ 2010년 ★

의무채용

★실시확정★

4월 무료 강의 실시

주택관리사(보)11회

9월 7일 시험시행

지금 바로 기회입니다!!

현대고시학원

(광주 동부경향서점) ☎062)222-6790, 232-1088

맛과 맛을 새롭게

국제외식산업(주)

SINCE 1985

◆스카이뷔페◆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도움찬 자리를 격조 높게 만들어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희망과 설렘이 가득한 자리.. 보다 여유있고, 보다 품위있는 결혼식!! 야외에서 자연의 싱그러움 향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야외 결혼식
- 출장뷔페
- 성당, 교회
- 도시락
- 결혼 이벤트

일곡 롯데슈퍼 7층 연회장

“스카이뷔페” OPEN

예약상담 (062)262-2278

부설 : 국제요리카데미학원

저렴한 광고비 뛰어난 광고 효과!

생활안내 광고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